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1. 11.(수) 12:00
(지 면) 2026. 11. 12.(목) 조간

행안부·질병청, 정부24서 잠복결핵·감염병 등 질병 민원 서류 한 번에 발급

- 11월 12일(목)부터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결과서, 감염병 신고확인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증명서 등 4종 우선 제공
- 보건소 방문 없이 온라인 발급 및 조회 가능… 연간 15만 건의 물리적 방문 부담 해소
- 향후 '정부24 AI국민비서'를 활용해 국민의 연령·성별·위치에 맞는 서비스로 발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국민이 보건소나 개별 기관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잠복결핵감염·감염병 등 주요 질병 관련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1월 12일(목)부터 '정부24(www.gov.kr)'를 통해 통합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검진을 받은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나의 감염병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서비스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행정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의 핵심 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주요 질병 관련 증명·조회 서비스 6종, 정부24에서 발급·조회

이번 연계를 통해 정부24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총 6종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감염병 신고확인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4종은 11월 12일(목)부터 이용 가능하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연동 등 2종은 올 연말부터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발급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였다.

-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한 명의 수검자에게 여러 건의 검사 이력이 있는 경우 발급을 원하는 검사 이력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수검자의 건강상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과거는 물론 가장 최근의 검사 결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 감염병 신고확인서: 의료기관에서 법정 감염병을 진단받은 후 나의 감염병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던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25종의 감염병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도록 우선 구축하였으며, 운영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환자와 가족의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 관할 보건소를 별도 방문 없이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 국가건강정보포털 생애주기별 건강·의학 정보 안내: 질병을 스스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영유아/임산부, 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 연계를 통해 연간 약 15만 건에 달하는 질병 민원의 물리적 방문 부담이 줄어들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례1] 보건소 방문 없이 정부24에서 한 번에 발급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게 된 보육교사 A 씨(30대)는 새 직장에 제출할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가 필요했다. 이전 어린이집에 근무할 때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았지만, 어디에서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아 증명서 발급을 어디에 요청해야 할지 난감했다. 이제는 정부24에 접속해 본인의 보건소 검진 이력을 확인하고, 보건소 방문 없이 필요한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이동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었다.

>> [사례2] 감염병 신고내역 확인, 이제 정부24에서 바로 조회

발열과 오한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말라리아 감염을 진단받은 B 씨(20

대)는 자신의 감염병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여 의료기관,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 여러 차례 문의 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고, 그 기간은 14일이나 걸렸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24에서 감염병명, 신고기관의 신고일, 해당 신고 건의 담당 보건소를 직접 조회할 수 있어 감염병 신고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정부24 'AI 국민비서*' 활용,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24 'AI 국민비서'를 활용해 질병 관련 민원과 사용자의 연령, 성별, 위치 및 추가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감염병 신고내역 등 민감정보는 본인 정보에 한해 제공하며, 개인별 맞춤 추천은 데이터 연계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AI 국민비서: 정부24(www.gov.kr) 첫 화면에서 인공지능(AI)에게 일상 언어로 질문할 수 있는 창

>> [예시] 인공지능(AI)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간호사 C 씨(20대)가 정부24 AI 국민비서에게 "새 직장에서 요구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진 증명서류가 무엇인지"를 물으면, 인공지능(AI)은 "해당 용도로는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를 발급하면 됩니다"라고 답하고, "검진 결과서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서류라 용도가 다릅니다"라며 차이점을 설명해준다. 아울러 C 씨의 연령을 바탕으로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청년층에 해당하는 생애주기별 건강정보를 추천받아,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의학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방문 없는' 질병 서류 발급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국민 체감도 향상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민께서 서류 한 장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고, 'AI 국민비서'를 통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AI 민주정부’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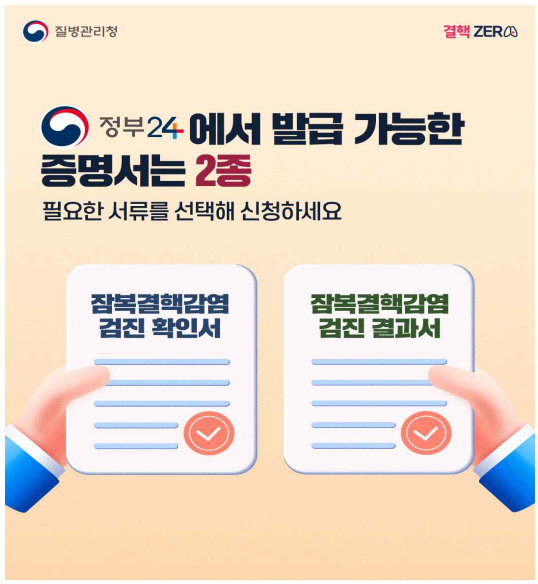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질병 관련 서비스는 국민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다루는 만큼 편리함과 더불어 정확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며, “질병관리청의 전문적인 건강·질병 서비스를 국민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 통합포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현관	(044-205-6450)
		담당자	사무관	권완필	(044-205-2917)
	질병청 감염병정책국 결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지영	(043-719-7310)
		담당자	책임연구원	김가희	(043-719-7927)
		담당자	책임연구원	정혜란	(043-719-7338)
	질병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성순	(043-719-7950)
		담당자	사무관	위성군	(043-719-7932)
	질병청 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예방과	책임자	과 장	이연경	(043-719-7430)
		담당자	사무관	박진욱	(043-719-7431)
	질병청 만성질환관리국 희귀질환관리과	책임자	과 장	윤성희	(043-719-8771)
		담당자	서기관	조우미	(043-719-877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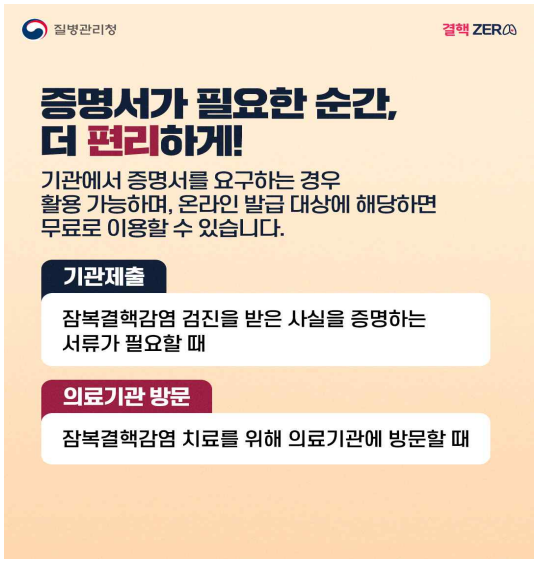
붙임 1 **〔카드뉴스〕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결과서 발급 서비스**













붙임 2 **〔카드뉴스〕 감염병 신고내역 확인(조회) 서비스**









